

양극성 장애의 고위험군으로서의 경조성 집단의 심리적인 특성

김영아 · 오경자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양극성장애를 비롯한 정동장애의 위험요소가 시사되는 경조성 성격 집단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양극성 장애의 위험요인 연구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1500명의 대학생 중에서 경조성 성격 척도의 높은 점수와 중간 점수로 선발된 40명씩을 대상으로 SADS-L과 SAS를 실시하여 정신건강과 일상적 적응 양상을 조사하였다. 또 선명도가 다른 일련의 사진 재인과제를 통해 인지적 측면의 특성도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경조 성향이 높은 대학생집단에서는, 정동장애와 더불어 정신병적 경향성, 알콜중독, 반사회적 경향 등의 전반적인 정신건강 측면에서 다소 취약해보이는 개인들이 더 많이 관찰되었다. 일상적응 측면에 있어 활동적이며 다소 피상적인 대인관계 양상을 보였으며, 자신을 에너지 수준이 높고 창의적이며 독특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학업 관련 항목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모호한 자극에 더 빨리 반응하였으나, 실제 재인능력도 우수하여, 충동성이라기 보다는 자신의 능력에 근거한 판단으로 보였고, 개념형성의 양도 풍부하여 인지적 측면에서 적응적인 면도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일부 피험자들의 극단적인 점수로 인한 경우가 많아 경조성 집단내에는 다양한 하위 집단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조성향이 양극성장애에 대한 취약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나, 위험요인 연구는 경조성 집단내의 하위집단을 효과적으로 분류하여, 적응수준의 차이를 매개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초점이 두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양극성장애의 병인론연구 역시 다른 정신장애와 마찬가지로 위험요인을 지닌 집단을 대상으로 시도되기도 한다. 고위험집단이 신뢰롭게 규정될 수 있으면, 이러한 연구도 촉진될 것이다. 정동장애, 특히 양극성장애의 강한 유전적 성향 때문에 고위험집단 연구는

주로 양극성장애 환자들의 친척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환자의 친척들 중 극히 일부만이 양극성장애로 발전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고위험집단 연구는 비효율적인 단점이 있다(Waters, 1979). 또 다른 접근은 순환성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다. 이들은 고양된 기분이 조증보다 그 강도가 미약하다는 점을 제외하면 양극성장애와 비슷한 기분의 기복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순환성장애 환자들은 양극성장애의 가족력이 있거나, 본인이 양극성장애로 발전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kiskal, Khani & Scott-Strauss, 1979). 이 접근의 제한점은 이미 치료를 요할만큼 손상된 임상집단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환자의 가족에 대상을 국한시키지 않으면서 발병 전이나 초기 진행과정에 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전집 중에서 고위험군을 선별하는 접근은 유용한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성격요소로 위험집단을 규정하는 방법도 그 중 하나이다 (Zerssen, 1982). 성격적 요소와 정신병리의 관련성은 임상장면에서 병전성격으로 언급되며 많이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병전성격이란 발병한 집단에 한정된 정보이기 때문에, 같은 성격유형을 지녔으면서도 발병하지 않은 집단에 관한 정보는 간과되기 쉽고, 취약성이 과대추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정상군에서의 성격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성격적 요소가 갖는 정신장애의 취약성을 제대로 판단하는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정동장애와 같이 발병 전 성격에서 비교적 일관된 성향이 관찰되는 장애의 연구에는 이러한 성격적 요소에 관한 연구가 유용할 수 있다. 경조성 성격은 많은 양극성장애 환자의 병전성격으로 보고되고 있다 (Arieti, 1974; Zerssen, 1982). 경조성향은 이와 같은 일종의 성격유형으로 언급되면서, 동시에 정동장애의 구성일화로 다루어지기도 한다.

정신장애 진단에 있어서의 경조증

정신장애 진단에 있어 경조증이란 의기양양하고 과민한 기분의 지속과 증가된 운동성, 주의산만, 초조 등을 특징으로 하는 상태로, DSM-III-R에서는 경조증 일화가 분리된 진단기준을 지니지 못하였으나 DSM-IV에서는 최소한 4일간 지속되는 다른 사람이

관찰할 수 있는 기분의 변화, 그리고 현저한 기능장애를 유발하거나 입원을 요할만큼 심하지는 않으며 정신병적 양상도 동반되지 않은 상태를 기술하는 진단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DSM-IV에서 정동장애는 기분상태를 규정하는 일화들, 즉 주요 우울, 조증, 경조, 혼재성 일화들의 기준이 먼저 제시되고 각 정동장애의 진단기준은 그 조합으로 제시된다. 예를들면, 주요 우울증은 하나 이상의 우울 일화로 구성되고, 순환성장애는 경조성 일화와 주요 우울 일화의 기준에는 못 미치는 우울증상의 조합으로 정의된다. 또한 경조증상과 우울증상을 함께 보이는 집단에 대한 진단의 유용성을 시사하는 증거들에 근거하여 양극성장애 II 라는 새로운 진단이 추가되었다. 이는 정신병적 증후를 보이는 조울증보다는 비교적 현실검증력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분의 기복을 보이는 집단이 어느정도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이 경조증은 여러 정동장애의 진단기준에 포함되면서 그 자체가 정동장애로 진단되거나 성격장애 수준으로 거론되지는 않는다. 이는 경조성향이 그 자체로는 심각한 부적응으로 규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나, 많은 경우 다른 요소와 함께 정동장애를 구성하는 일부로 존재함을 말해준다. 또한 많은 정동장애 환자들도 자신의 경조성 일화를 일의 능률이 오르고 잘 지낸 기간으로 적응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다른 증상이 함께 나타나기 전에는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사실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Jamison, Hammen, & Padesky, 1980). 따라서 경조성집단을 고위험군으로 하는 연구는, 일반적인 성격적 특성에서 정신과적 증후군으로 연결된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ckblad & Chapman, 1986). 또한 경조성향만으로 추출된 집단이 어떤 부적응적 양상을 보이는가를 봄으로서 경조성향이 그 자체로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경조성의 성격적 특성

경조성은 일종의 성격적 특성으로 언급되기도 하는

데, 잠을 많이 자지 않고 정력적으로 일하며, 여러가지 일에 개입하는 활력이 넘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경조성 성격은 판매원이나 정치가, 예술가 등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관찰되며, 적응적인 측면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에게서 한가지 일에 지속적으로 몰두하지 못하고 쉽게 새로운 일을 벌려 놓고 일을 잘 끝맺지 못하는 결점이 보고되기도 한다(Arieti, 1974; Fieve, 1975). Eckblad 등(1986)은,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경조성향이 높은 대학생들이 음주나, 약물 복용등의 문제를 많이 보이며 매우 사교적이고 예술적 흥미가 높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경조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사고의 흐름이 빠르고 즉각적이며 개념이 잘 비약하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 우울증과 비교할 때 언어구사력, 개념형성능력이 풍부하다고 하며(Andreason & Pfohl, 1976), Andreason (1980)은 조증의 과잉병주화같은 사고특성은 창조적 사고유형과 관련된다는 점을 보고하며, 조증 혹은 경조성 집단과 예술적인 소질간의 강한 상관관계를 뒷받침하였다. 그러나 이는 주로 조증 집단을 대상으로 하거나 경조성 집단이 포함된 연구결과들에 근거한 것이며, 경조증과 조증상태를 구분하여 연구된 바는 거의 없다. 양상이 비슷하긴 하지만 정신병적 증상의 동반여부 등과 같이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임상적 관찰이나 조증집단 대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언급되는 사고의 충동성이나, 능동적 개념형성 등의 특성이 경조성 성격의 집단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경조성향의 측정

경조성은 이와같이 그 정도에 따라 여러 정동장애의 구성일화로, 혹은 성격적 특성 등으로 여러 측면에서 언급되어 온 만큼, 그 자체만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가 아닌 여러척도의 일부로 다소 일관성없이 측정되어 왔다. 경조성 집단의 특성을 연구하려면 일단

경조성을 일관성있게 규정하고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조성향의 측정에는 MMPI 경조증척도(Mackinley & Hathaway, 1980), Wiggins(1980)의 경조성척도, Millon(1976)의 경조성척도, Magaro와 Smith (1981)의 조증양식 척도 등이 이용되어 왔으나 대부분 내적상관이 높지 않고 경조성향 자체만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척도들도 아니다. 또한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전집에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근래, Eckblad와 Chapman(1986)이 경조성 성격에 관한 묘사에 근거해 경조성향만을 측정하기 위한 경조성 성격 척도(Hypomanic Personality Scale)를 발전시켰다. 이 척도는 대학생 집단에서 정신장애의 고위험군을 선별해내기 위한 척도개발 작업의 일부로 발전된 것으로, 성격적 요소가 정신장애의 발병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추적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양극성장애의 위험집단을 정신분열증의 위험집단으로부터 변별해내기 위한 목적도 있는데, 이는 정신분열증의 전조로 나타나는 중후기 정동장애의 고위험 집단에서도 발견된다는 보고(Pope & Lipinski, 1978)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경조성이라는 성격적 요소가 양극성 장애를 비롯한 정신장애 전반에 대해 갖는 취약성을 살펴보는 연구에 적합한 척도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 척도의 점수로 선별된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고위험군의 선별 도구로서의 이 척도의 유용성에 관한 정보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조성향이 높은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경조성향이 양극성장애를 비롯한 정동장애의 발병에 어떠한 취약성이 있는지는 장기종단연구를 통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나, 현재로서는 일단 제반 정신건강 측면에서의 취약성이 있는지를 살펴서 고위험군으로서 관찰될 타당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예비연구적인 성격을 띄게되며, 현재 경조성 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의 특성을 파악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장점과 약점에 관한 정보

는 발병과정에 있어서 어떤 요인에 초점을 맞춰 관찰해야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조성 자체가 여러관점에서 다루어지면서 그 특성들도 산만하게 언급되어 왔는데, 일단 그 동안 여러 문헌에서 언급되어온 특성들을 확인하며 종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행하여질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조성 성격 집단의 우울, 음주, 불안 등의 정신 건강 측면의 특성을 알아보고,

둘째, 일상적 적응 측면에서 나타나는 특성과,

셋째, 지각적 능동성, 충동성과 같은 인지적 측면에서의 특성을 살펴본다.

방 법

연구 대상

연세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 시간 전에 경조성 성격척도(Eckblad & Chapman, 1986)를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모두 1289부가 분석되었는데, 경조성 점수 평균은 21.27 (SD=7.52)이었다. 남녀점수 평균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어, 여자(M=21.69, SD=7.31)가 남자(M=20.42, SD=7.31)보다 낮은 경조성향을 보였다($t(1288)=-2.85, p<.005$). 이는 미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Eckblad, 1986)에서 여자가 (M=22.40, SD=8.12), 남자(M=21.08, SD=8.19)보다 다소 높은 경조성향을 보인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이와같이 전체 경조성 점수의 양상에서는 선행연구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선행연구에서 경조성 집단의 기준으로 사용되었던 36점은, 이번 연구의 대상자들에게서도 백분위로 남자의 경우 97.4, 여자의 경우 97.9에 해당되는 극단적인 점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일괄적으로 36점 이상을 기록한 피험자 40명을 경조성 집단으로 선발하였다. 이들중 11명이 여자였고, 전공이나 학년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통

제집단인 중간경조성집단은 전체평균에 해당되는 20-22점 가운데 실험집단과 성별, 전공, 학년 등을 맞추어 40명을 선발하였다.

연구 도구

1) 경조성 성격척도 (Hypomanic Personality Scale)

Eckblad와 Chapman(1986)의 경조성 성격 척도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는데, 경조성 성격에 관한 내용만으로 이루어진 48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Jackson(1970, 1971)의 경조성 성격에 관한 특질묘사를 문항화하여 여러번 시행해 문항간 상관성이 높고 사회적 바람직성이나 친숙도와의 상관성이 낮은 문항들을 뽑아 만든 것으로, 내적 상관은 .87이며 사회적 바람직성과의 상관은 .05이다.

2) 정신분열증과 정동장애 진단체계(Schizophrenia & Affective Disorder -Lifetime version; SADS-L)

정신과적 진단을 위한 구조화된 면담체계로(Spitzer & Edicott, 1977), 진단에 필요한 증상들의 유무를 확인하는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좀 더 구조화하기 위해 질문내용을 문항으로 만들어 본인이 먼저 기록하게 한 다음, 연구자가 다시 면담을 통해 표시한 문항의 내용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록하였는지 확인하고 기간이나 양상을 물어 보충하였다. 치료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개별 면담에 의한 임상가의 진단이 바람직하겠지만, 정신건강 측면에서의 집단적 특성을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Eckblad & Chapman, 1986)에서 사용된 바 있는 구조화된 평가도구를 사용하였다.

3) 사회적응척도(Social Adjustment Scale)

Weissman과 Paykel(1974)의 사회적응척도(SAS)를 이용하여 일상적 적응에 있어서의 경조집단의 특성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대인관계 및 여가활동, 직장에서의 적응등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역시 구조화된 면담에 의해 적응정도를 평가하는 척도로 대학생용을 사용하였다.

4) 재인 과제

Bruner(1964)의 사진재인과제를 사용하여 경조성 집단의 인지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이는 지각적 유연성과 능동성, 새로운 개념형성능력, 판단의 충동성 등 임상 장면에서 사용되는 투사검사와 같이 개인의 성격 특성에 따른 지각유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과제는 특히 충동성이나 개념형성력 등 경조성 집단의 인지적 특성으로 언급되어 온 요인들을 측정할 수 있다. 비구조화된 과제로서 인지적 특성을 폭넓게 반영하면서, 재인능력을 점수화시켜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선행연구가 미비한 경조성 집단의 인지적 특성을 살피는데는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자극은 매우 흥미한 단계에서 아주 뚜렷한 단계까지 12단계의 선명도의 차이를 지닌 사진들 7종류, 총 84장을 노트에 붙여 제시하였다. 가장 흐린 단계가 1번이고 가장 선명한 단계가 12번이 된다. 난이도에 따른 사진의 단계의 번호를 그대로 점수화하였기 때문에, 일찍 반응하거나 알아맞히면 낮은 점수가 기록된다. 5종류의 사진은 알아맞출 기회가 한 번만 주어지는 제1과제에 사용되었고 2종류의 사진은 첫 장부터 각 단계마다 반응하게 하는 제2과제에 사용되었다. 사진의 크기는 4.5inch x 3.0inch로 사진의 내용은 일상적으로 접할수 있는 사물들이다.

연구 절차

피험자가 실험실에 오면 먼저 정신건강과 사회적 적응에 관한 질문지를 작성하게 하고, 완성하면 면담을 시작하였는데, 경조, 우울, 불안 일화의 빈도와 내용, 본인의 평가, 정신병적 경향성의 구체적 내용, 그리고 반사회적 성격과 음주에 관한 문항들에 있어 그 정도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질문을 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였다.

이어서 사진 과제를 시작하였다. 제1과제는 사진을

흐린 단계에서 점차로 선명해지는 단계로 제시하면서 사진의 내용이 무엇인지 맞추는 과제였다. 이 때 이른 단계, 즉, 선명해지기 전에 맞출수록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으나 대답할 기회는 한번 밖에 없음을 알려주었다. 사진을 넘겨주면서 피험자가 대답을 하면, 그 단계의 번호와 그 내용을 기록하고, 다음 사진 시행으로 넘어갔으며 이를 5번 실시하였다.

제 2 과제에서 역시 흐린 단계부터 사진을 제시하였으나. 이번에는 첫 단계부터 사진의 내용에 대해 말하게 하였다. 너무 흥미하여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더라도 보이는대로 말하도록 격려했다. 반응 내용을 기록용지에 기입하고 피험자가 사진의 내용을 정확히 맞추는 단계에 이르면 다음 시행으로 넘어갔다. 제 2 과제가 끝나면, 제1과제에서 피험자가 사진내용을 맞추지 못했던 시행의 사진 계열을 다시 보여주며, 피험자가 사진내용을 제대로 맞추는 단계의 번호를 기록하였다.

결 과

경조성집단의 정신건강과 일상적 적응에 관한 질문지와 면담 내용을 χ^2 검증과 t검정으로 분석하였고, 인지적 측면의 사진과제 자료분석에는 변량분석을 사용하였다.

1.정신 건강 측면

경조성집단과 통제집단의 정신건강에 대한 결과가 표1에 제시되어 있다.

1) 경조증 일화(hypomanic episode)

경조성집단의 피험자중 34명이, 통제집단에서는 18명이 SADS-L진단 기준에 부합되는 경조증 일화를 보고하여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chi^2=14.06$ $p<.005$). 이는 피험자들이 질문에 응답한 내용을 토대로 한 것으로 추가적인 면담 결과, 두 집단의 경조증 일화는 그 내용에 있어서도 다소 차이를 보였다. 경

표 1. 정신건강 문제의 사례수와 평균 점수

| | 경조성집단 (n=40) | 통제집단 (n=40) | χ^2 |
|---------|-----------------|----------------|----------|
| 경조중일화 | 34 | 18 | 11.30** |
| 우울중일화 | 15 | 7 | 4.00* |
| 순환성장애 | 26 | 13 | 4.23* |
| 범불안장애 | 7 | 5 | 0.38 |
| 알콜중독 | 6 | 3 | 1.26 |
| 알콜중독 경향 | 15 | 6 | 5.74* |
| | | | F |
| 정신병적 증후 | .68(1.10) | .10(.30) | 2.67* |
| 반사회적 성향 | 1.72(1.30) | 0.97(1.20) | 2.67* |

* $p < .05$ ** $p < .005$ ()안은 SD

조중 일화의 월 평균 빈도(경조성집단=2.3회, 통제집단=0.4회)뿐 아니라, 원인에 있어서도 집단간 차이를 보였다. 경조성집단의 34명중 23명은 대체로 별 이유 없이 기분이 잘 들뜬다고 대답한 반면, 통제집단에서는 5명만이 이러한 상태적 기분상승을 보고할 뿐, 나머지는 어떤 계기에 의한 일시적 일화가 많았다($\chi^2=11.3, p < .005$). 경조성 집단중 34명이외의 나머지 피험자 6명은 기간이 길지 않아 SADS-L기준의 경조중에 해당되지 않았다.

2)우울중 일화(depressive episode)

경조성집단에서 의미있게 더 많은 피험자들이 SADS-L기준에 부합되는 1주 이상 지속된 우울중 일화를 보고하였다($\chi^2=4.00, p < .05$). 이는 일주일, 혹은 그 이상의 우울한 기분을 보이며, 도움을 요청하거나 일상생활에서 평소와 같이 행동하기 어려운 경험이 있고, 이 기간중 식욕감퇴, 무기력, 불면, 주위집중 곤란, 자살 생각 등의 증상 중 4개 이상을 보였다고 보고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우울중 역시 면담 결과 그 내용에 있어 차이를 보였는데, 통제집단 피험자들은 대입 실패와 같은 뚜렷한 계기에 의한 일회적인 경험이 많은 반면 경조성집단에서는 대부분 별 이유없이 어느정도는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우울이

라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개인의 특성으로 일관되게 2개월에 한 번 이상 나타나는 우울성향을 기준으로 했을 때 경조성집단에서는 12명, 통제집단에서는 3명의 피험자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 질문지상에 보고된 것보다 더 큰 집단간 차이를 보였다($\chi^2=6.64, p < .05$).

3) 순환성장애(cyclothymia)

불안정한 기분 변화를 보이는 SADS-L기준의 순환성장애 역시 경조성집단에서 더 많았다($\chi^2=4.23, p < .05$).

4)범불안장애(general anxiety disorder)

SADS-L의 범불안장애 기준에 해당되는 피험자 수에 있어서는 집단간에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으나($\chi^2=0.38, p > .05$), 불안의 내용이나 계기는 달라보였는데, 경조성집단에서 주로 우울기간과 관련된 불안을 많이 보고하였다. 의사의 도움을 받았을 정도로 심각한 범불안장애를 보인 피험자가 경조성집단에서 한 명 관찰되었으며, 이 경우 자신의 경조성 행동을 대인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5) 알콜중독(alcoholism)

SADS-L 기준의 알콜중독에 있어서는 집단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chi^2=1.26, p > .05$), 한달 이상 계속 폭주한 경험은 없으면서 음주와 관련된 다른 항목이 3개 이상 해당되는 알콜중독 성향(alcoholic trend)은 경조성집단에서 더 많았다($\chi^2=5.74, p < .02$).

6) 정신병적 경향성(psychoticlike symptom)

사고의 전파, 망상, 환시, 환청 등과 같은 정신병(psychosis)에서 잘 나타나는 증상들을 6문항으로 나누어 질문하고, 피험자가 표시한 문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았다. 그 결과 정신병의 진단기준에 해당될만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 사고장애를 시사하는 증상이라기보다는 생경한 경험이나 마술적 사고를 반영하는 응답으로 현재의 적용상태가 어느정도 통제된 대학생집단에서 쉽게 예

측되는 결과이다.

그러나 미술적사고나 생경한 시각적 경험이 정신병의 고위험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고(Chapman, Edell, & Chapman, 1980), 현 연구도 정신건강상의 취약성향을 보기위한 것이므로, 본인들이 보고한 문항수를 집단간에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는데($t(78)=2.67, p<.05$), 이 차이는 경조성집단의 상대적으로 큰 표준편차에서 나타나듯이, 4-6개의 항목에 해당되는 증상들을 모두 보고한 일부 극단적인 피험자들에 의한 것이다. 2명은 비교적 생생한 환청과 환시를 보고하고 자신의 생각이 머리를 빠져나간다고 하는 등, 정신분열증에 가까운 증상을 보고하기도 하였고, 대인관계를 비롯한 일상기능도 매우 저하되어 있었다.

7) 반사회적 성향(antisocial trend)

반사회적 행동을 묘사하는 6문항의 평균을 집단별로 비교한 반사회적 성향 점수에서 의미있는 집단차이가 관찰되었으나($t(78)=2.67, p<.05$), 구체적 내용을 질문한 결과, 대부분 반사회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미약한 규칙위반이나 책임불이행이 많았다.

2. 일상적 적응의 측면

표 2.사회성 관련 문항에서 보고된 점수 평균

| | 경조성집단 | 통제집단 | t |
|---------|--------------|--------------|----------------|
| 친구의 범위 | 24.16(43.41) | 9.25(5.98) | 2.15* |
| 절친한 친구 | 3.05 (1.83) | 2.93(1.62) | .32 |
| 대인관계 갈등 | 2.33 (1.10) | 2.08(.80) | 1.17 |
| 가입했던 씨클 | 2.02 (1.16) | 1.37(.98) | 1.42* |
| 현재의 씨클 | .53 (.72) | .42(.50) | .72 |
| 사교성 | 80.67(17.81) | 68.72(17.81) | 2.88** |
| 에너지수준 | 81.35(16.24) | 64.87(16.78) | 4.46*** |
| | | | X ² |
| 리더 역할 | 26 | 16 | 4.46* |

* $p<.05$ ** $p<.005$ *** $p<.001$ ()안은 SD

1) 사회성

경조성집단은 여러 가지 사회성의 측면에 있어서도 통제집단과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전반적인 대인관계에 있어 경조성집단이 사교 범위는 의미있게 넓었으나($t(78)=2.15, p<.05$), 절친한 친구의 수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t(78)=.32, p>.05$). 또한 SAS기준에 따라 현재 대인 관계의 원만함을 스스로 평정하게 한 결과, 역시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78)=1.17, p>.05$).

또한 경조성집단이 대학 입학 이후에 더 많은 씨클에 가입해온 것으로 나타났으나($t(78)=1.42, p<.05$), 현재 참여하고 있는 씨클의 수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78)=.72, p>.05$). 대인 관계에서의 자신의 역할 지각에 있어서, 자신을 리더로 지각하는 사람이 경조성집단에 더 많았다 ($\chi^2=4.46, p<.05$). 자신의 사교성이나 에너지수준에 대한 백분위상의 평정에 있어, 경조성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자신을 더 사교적이고($t(78)=2.88, p<.005$), 에너지 수준이 높은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t(78)=4.46, p<.001$).

2) 학업 및 여가 활동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업과 관련된 문항에서는 모두 의미있는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표 3. 학업, 여가 활동 문항에서 보고된 점수 평균

| | 경조성집단 | 통제집단 | t |
|---------|--------------|--------------|----------------|
| 월평균 | | | |
| 결강시간 | 11.17(14.89) | 6.55(8.93) | 1.68 |
| 지난학기 학점 | 2.90(0.63) | 3.05(0.44) | -1.18 |
| 예상 학점 | 3.25(0.32) | 3.21(0.30) | .60 |
| 창의성 평정 | 86.00(12.97) | 66.60(19.55) | 5.10*** |
| 독특성평정 | 84.53(15.10) | 71.55(18.76) | 3.41*** |
| | | | X ² |
| 창조적인 작업 | 13 | 5 | 4.55* |

* $p<.05$ *** $p<.001$ ()안은 SD

한달 평균 결강시간이나($t(78)=1.68, p>.05$), 지난 학기 학점에서($t(78)=-1.18, p>.05$), 그리고 이번 학기 예상 학점에서 모두 집단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t(78)=.60, p>.05$). 여가시간을 직접 음악을 작곡하거나, 그림, 조각 작품을 만드는 등, 보다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일로 보내는 사람이 경조성집단에 더 많았다($\chi^2=4.55, p<.05$).

창의성과 독특성의 영역에 있어서, 통제집단 대학생들도 자신을 평균수준 이상의 창의적이고 독특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경조성집단은 이보다 더 높게 스스로를 평가하여, 차이를 보였다($t(78)=5.10, p<.001$; $t(78)=3.41, p<.001$).

3. 인지적 측면

사진과제에서 보여준 두 집단의 재인 양상에서의 차이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제 1과제에서 5종류의 사진제열에 대해 처음 대답한 단계의 번호를 점수화하여 변량분석한 결과, 집단에 따른 주효과가 있어 경조성집단이 더 모호한 단계에서 일찍 재인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78)=4.71, p<.05$). 또한 과제로 제시된 사진의 종류에 따른 주효과가 있어($F(4,78)=16.80, p<.001$), 사진마다 반응단계는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나 집단과 사진 종류간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아, 재인과정상의 집단차가 과제종류에 상관없이 비교적 일정하게 관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F(4,78)=1.88, p>.05$), 다른 과제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

제1과제에서는 반응기회가 한 번이었기 때문에 첫

반응에서 정확한 재인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다시 반응기회의 제한을 두지않고 알아 맞추게 하면서 사진의 내용을 정확히 재인한 단계를 측정하였다. 첫 반응에서 정확한 재인을 한 피험자는 그 단계를 재인 단계로 기록하고, 나머지 피험자는 이 과정에서 정확하게 재인한 단계를 기록하였다. 변량분석 결과, 경조성집단이 실제로 재인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F(2,78)=5.41, p<.05$). 여기서, 통제집단이 좀 더 신중하게 반응하느라고, 재인은 일찍 하고도 첫 반응을 늦게하여, 실제 재인능력보다 과소평가 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사진의 내용을 모두 정확하게 맞아야 하는 엄격한 기준으로 재인을 평가하였기 때문에, 많은 수의 피험자가 대개, 반응기회의 제한없이 반응하게하는 후속 단계에서 정확한 재인 단계를 평가받게 되었다. 따라서 첫 반응으로 재인 단계를 평가받은 경우는 많지 않았을 뿐더러, 경조성 집단이 첫 반응에서의 오류율이 통제집단보다 높지않고 오히려 정확한 재인을 한 경우가 더 많은 점을 고려할 때(경조성집단=56, 통제집단=48), 통제집단이 신중함으로 인해 재인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의 결과는 모호한 자극에 대한 두 집단의 재인능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제2과제에서 사진 한 장마다 보이는 대로 반응하게 하면서 반응의 양을 측정하였다. 반응내용을 기록한 것에서, 조사나 반복되는 내용, 혹은 사진 이외의 언급을 제외한 언어적 개념의 수로 판단하였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사진이 매우 흐릿하여 물체의 정확한 재인은 어려웠으나, 대부분 어렵지않게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많이 보고하였다. 이 경우 제1과제에서와는 달리 사진내용을 정확히 재인하는 단계의 평균이 경조성집단의 경우 7.88, 통제집단의 경우 8.17로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다($F(1,78)=1.28, p>.05$). 변량분석 결과, 경조성집단이 통제집단보다 같은 자극에 대해 의미있게 많은 반응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F(1,78)=7.01, p<.01$),

표 4. 인지과제에서의 점수 평균

| | 경조성집단 | 통제집단 | F |
|--------|--------------|-------------|--------|
| | | | |
| 반응한 단계 | 5.75(1.54) | 6.28(1.84) | 4.71* |
| 재인한 단계 | 8.82(.67) | 9.15(.68) | 5.21* |
| 반응의 양 | 23.23(21.06) | 15.18(8.25) | 7.01** |

* $p<.05$ ** $p<.01$ ()안은SD

논 의

경조성향이 높은 대학생 집단이 중간 경조성향의 집단과 보이는 차이는 다음과 같이 논의될 수 있다.

첫째, 경조성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여러가지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기능이 좋은 일반전집에서 경조성향에 관한 점수만으로 선정된 피험자들이 우울증 일화와 순환성장애를 많이 보고하였다는 사실은, 경조성향이 단지 기분상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복이 큰 기분변화의 한 단면일 수 있으며, 정동장애의 취약성과 밀접하게 관련됨을 시사한다. 또한 경조성향과 관련된 음주문제나 반사회적 경향의 행동이 많이 보고되었고 정신병적 경향성도 상대적으로 많아, 경조성향이 정신건강 전반에 걸친 기본적인 취약성과도 관련될 수 있어 보인다. 그러나, 정신과적 진단에 해당하는 심각한 경우는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경조성향이 곧 정신장애의 취약성이라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취약성향 중 어느 정도가 실제 병리로 연결되는지는 장기적인 추적연구를 통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일상생활 적응측면에 있어 경조성집단은 대인관계나 과외활동에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나타냈는데, 실제 활동이나 유대관계에는 별 차이가 없어 이러한 사회성은 경조증 성격의 특성으로 언급되어 온 과도한 계획이나 대인관계의 피상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학업과 관련된 사항에서는 집단차가 관찰되지 않은 것은, 같은 대학의 학생들이라는 지적 능력이 통제된 집단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과 관련되어 보인다. 그러나 면담에서 경조성향이 학업성취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지각하는 피험자도 있는 반면, 일을 할 때면 항상 자신의 넘치는 의욕과 현실과의 괴리를 조절하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하기도 하여, 경조성향이 일상기능 수행에 미치는 영향은 단일하지 않은 것 같고 보다 자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셋째, 경조성집단은 사진재인 과제에서 반응이 빠르고 정확하며 풍부하다는 사실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과제에서는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사물이 흐린 것부터 점차로 제시되기 때문에, 확실한 재인이 이루어지기 전에 부분과 전체에 대한 지각이 상호 작용하며 가설을 설정, 기각하는 불안정한 과정이 있게 되며, 이른 단계에서 반응할수록 점수를 주며 동기화시켰기 때문에 불완전한 재인 상태에서 반응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 쉽다(Bruner & Potter, 1964). 따라서 경조성집단의 인지적인 성향으로 언급되어온 충동성이 반영되면 반응 단계가 이를 것으로 기대하였다.

결과는 이를 지지하였지만 이 경우 다소 일찍 반응하는 경향을 충동성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른 반응을 충동성으로 가정했던 것은 정확한 재인까지 반응을 유보하지 못하는 성급한 판단 오류로 보았기 때문이나, 본 연구의 실험과제에서는 경조성집단이 재인능력도 그만큼 우수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조성집단이 반응을 일찍 한 것을 충동성과 같은 어떤 성격적인 경향보다는 자신의 재인 능력에 근거한 적절한 판단으로 보인다.

경조성 집단이 우수한 재인능력을 보인 것은, 기본적인 수준의 인지기능의 차이라기보다는 경조성집단이 별 구체적인 보상이 없는 성취에 대해서도 잘 동기화되기 때문에, 과제에 좀 더 의욕적으로 몰입하여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한 것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는 비슷한 인지적 성취를 이룬 대학생 집단중에서는, 경조성향과 관련된 취약성과 우수한 지적 잠재력이 상쇄된 집단이 존재함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재인능력의 차이가 정보처리과정상의 어떤 단계에서의 차이를 반영한 것인지를 나누어 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 같다.

희미한 단계부터 보이는대로 반응하게 한 과제에서 많은 반응을 한 것은 모호한 자극을 조직하여 반응을 생성해내는 능력과 관련된 것으로, 경조성집단의 지각적 능동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과제에서는 재인능력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성급한 가설에 너무 많이 개입하여 사진을 본 경우 사진이 선행해져도 이를 잘 보지 못해 재인이 늦어진다는 선행연구(Bruner & Potter, 1964)의 맥락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경조성집단이

인지적으로 오히려 더 우수한 면도 있지만, 과잉개입 같은 성격적 요소로 인해 잠재능력의 발휘에 있어 효율성이 저하될 소지도 있어 보인다.

재인과제의 결과는, 경조집단이 조중집단과 비슷한 인지적 특성을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특성이 부적응적 측면으로 연결되는 데 있어서는 지적수준등과 같은 요소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같이 경조성 집단은, 정신건강 측면에 있어서 취약성을 보인 반면, 인지적으로 다소 우수한 수행을 보였고 일상적응 측면에 있어서는 다양한 특성을 보였다.

그러나 이와같이 경조성집단이 여러 영역에서 보이는 특성이 경조성 성향의 각 개인을 일관되게 설명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 연구 결과의 통계치들의 대부분이 경조성집단의 평균에서 큰 표준 편차를 보인 사실에서 말해주듯이 많은 경조성집단의 특성은 극단적인 점수를 보인 개인들에 의한 것이 많다. 면담내용을 토대로 여러 측면의 결과들을 개인을 중심으로 해석해 볼 때도 경조성집단에는 서로 상이한 하위집단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몇몇 경조성향의 피험자들은 매우 쾌락지향적인 유형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경조중 상태를 단지 즐긴다고 하였으며 음주와 반사회적 문항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우울이나 불안은 별로 보고되지 않았으며, 여가시간을 자극추구와 관련된 취미로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비율은 높지 않아, 이러한 유형으로 보이는 경우가 40명중 5명 정도 관찰되었고, 모두 남자였다.

비교적 많은 피험자가 성취지향적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었는데, 이들은 대개 성취의 기쁨을 경조중 일화의 원인으로 많이 들었으며 항상 목표를 세우고 여러가지 일을 병행하였으며 자신의 경조성향이 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각기 달랐다. 이들중 일부는 다소 강박적인 성향도 관찰되었으며, 상경대의 피험자 몇명은 자신의 원대한 사업구상을 이야기하거나, 이를 실제로 학업과 병행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일부 피험자들은 늘 예술분야의 취미나 전공을 하면서, 경조중의 기간을 창조적인 영감이 잘 떠오르는 시기로 보고하기도 하였으나, 일상생활기능이 감정기

복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유형의 피험자들은 대부분 사진과제의 반응양이 매우 많고 풍부하였으며 반사회적 성향은 거의 관찰되지 않았고 자신을 매우 독특한 사람으로 지각하였다. 또한 정신병적 증후와 관련된 항목에서 의외로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지만 스스로 이를 경험의 개방성으로 통합하고 있었다.

이렇게 경조성향만으로 선정된 집단에 상이한 유형이 존재하는 사실은 어느정도는 성격이라는 구인자체가 지닌 문제로 환원될 수 있다. 성격유형은 여러 변인의 조합으로 완전히 구분되는 범주(category)가 아닌 임의적인 분류이기 때문이다. 성격장애분야에서 진단명보다 특정 기질의 심각도와 유연성등을 각 수준의 연속선 상에 나타내는 차원모형(Widiger & Trull, 1985)이 제기되고, 각 성격장애에 공변하여 나타나는 여러 다른 성격장애 특성의 군집분석(Leslie, 1988)이 시도되는 것도 역시 같은 문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같이 어떤 성향의 점수로 선정된 집단에 다른 성격요인과의 조합에 따라 여러 유형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성격요인을 중심으로 한 모든 고위험군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결과로 볼 때, 높은 경조성향은 그 자체로 정신병리상의 진단명은 없으나, 양극성장애를 비롯한 제반 정신건강상의 취약요소를 지녀 관심이 요구된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가지 적응적 특성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러한 특성은 경조성 자체가 지닌 특성이라기보다는 경조성 집단내의 이질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극성장애의 발병취약성이나 다른 부적응적 문제로 발전할 위험성은 경조성 척도의 높은 점수만으로 예측하기 어렵다. 이 척도를 발전시킨 목적대로 양극성장애로의 발병 취약집단을 변별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려면(Eckblad & Chapman, 1986), 경조성 내의 상이한 하위집단을 효과적으로 변별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단일 경조성 척도의 점수가 다른 개인적 특성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경조성향과 결합된 어떤 특성이 정동장애나 그 외의 정신병리에 취약하게 만드는지에 관한 보

다 체계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다.

인지 및 일상적응능력이 비교적 통제된 대학생집단을 대상으로 한 점이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 생각된다. 임상군이 아닌 일반전집에서의 성격적 특성이 갖는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목적에 충실하려면, 다양한 계층의 대상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특히 경조성 성격연구는 주로 대학생이나 예술가 등의 한정된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와서 그 적용적 의미가 더 부각된 것일 가능성도 있다. 인지적 수준이나 환경에 따라, 경조성향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며, 적용적 의미도 다를 것이다.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경조성향의 적용적 요인과 부적용적 요인이 표현되는 양상에 관한 연구는, 경조성이 갖는 복합적 측면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Akiskal, H. S., Khani, M. K., & Scott-Strauss, A. (1979). Cyclothymic temperamental disorders. *The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2, 527-554.
- Andreason, N. J. C. (1980). Mania and creativity. In R. H. Belmarker & H. M. van Praag (Eds.), *Mania: An evolving concept* (pp.377-386). Jamaica, NY: Spectrum.
- Andreason, N. J. C. & Pfohl, B. (1976). Linguistic analysis of speech in affective disorder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3, 1361-1367.
- Arieti, S. (1974). Affective disorders: Manic depressive psychosis and psychotic depression. In S. Arieti & E. B. Brode (Eds.) *American handbook of psychiatry* (vol.3, 2nd., pp.449-490). New York: Basic Books.
- Bruner, J. S., & Potter, M. C. (1964). Interference in visual recognition. *Science* 144, 424-425.
- Cameron, N. (1963). *Personality developmental and psychopathology*. Boston: Houghton Mifflin.
- Eckblad, M. & Chapman, L. J. (198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for hypomanic personalit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5, 214-222.
- Fieve, R. R. (1975). *Moodswing: The third revolution in psychiatry*. New York: Basic books.
- Jackson, D. N. (1970). A sequential system for personality scale development. In C. N. Spielberger (Ed.), *Current topics in clinical and community psychology* (Vol.2, pp.61-96). New York: Academic Press.
- Jamison, K. R., Gerner, R. H., Hammen, C., & Padesky, C (1980). Clouds and silver linings: Positive experiences associated with primary affective disorders.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 Leisle, C.(1988). The categorical representation of personality disorde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7, 314-321.
- Mackinley, J. C., & Hathaway, S. R. (1980). Scales 3 (Hysteria), 9 (Hypomania) and 4 (Psychopathic Deviate). In W. G. Dahlstrom & L. E. Dahlstrom (Eds.), *Basic readings on the MMPI: A new selection on personality assessment* (pp. 42-64).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Magaro, P., & Smith, P. (1981). The personality of clinical types: An empirically derived taxonom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7, 796-809.
- Millon, T. (1976). *Millon Mutiaxial Clinical Inventory manual*. Minneapolis: National Computer System.
- Pope, H. G., & Lipinski, J. F. (1987). Diagnosis in schizophrenia and manic-depressive illness: A reassessment of the specificity of schizophrenia symptoms in the light of current research.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5, 811-828

- Spitzer, R. L., & Endicott, J. (1977). *Schedule for affective disorder and schizophrenia-lifetime version (SADS-L)*. New York: New York State Psychiatric Institute.
- Waters, B. G. H. (1979). Risk to bipolar affective disorder. In B. Shopsin (Ed.), *Manic illness* (pp. 29-47). New York: Raven Press.
- Weissman, M. M., & Paykel, E. S. (1974). *The depressed woman: A study of social relationship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idiger, T. A., Trull, T. L., Hurt, S. W., Clarkin, J., & Frances, A. (1987). A multidimensional scaling of the DSM-III personality disorder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4, 557-563.
- Wiggins, J. (1980). Content dimension in the MMPI. In W. G. Dahlstrom & L. E. Dahlstrom (Eds.), *Basic readings on the MMPI: A new selection on personality assessment* (pp.300-327).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Zerssen, D. V.(1982). Personality and affective disorder. In E. S. Paker(Ed.). *Handbook of affective disorders* (pp.212-228). New York: Guilford Pres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Hypomnic Tendency as a Risk Factor for Bipolar Disorder

Young-Ah Kim and Kyung-Ja Oh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characteristics of the hypomanic personality group as a potential high risk factor for affective disorders, particularly the bipolar disorder. Hypomanic group(n=40) and nonhypomanic control group(n=40) were selected on the basis of the hypomanic personality scale. And their mental health and daily adjustment status were investigated using the SADS-L and the SAS. Aspects of the subjects' cognitive style were assessed through the Picture Recognition Test. The results indicated that college students with hypomanic tendency tend to be vulnerable to symptoms of affective disorders and also showed an elevated level of general mental problems such as psychotic-like symptoms, alcoholism, and antisocial traits. Compared to control group, they were socially outgoing, perceived themselves as creative and unique person with high energy level. No differences in academic-related behaviors of the two group were found. On the cognitive measure, adaptive aspects of the hypomanic group were found. The hypomanic group showed shorter response time to ambiguous stimuli, not due to impulsiveness but to superior recognition ability. They also manifested superior concept formation ability. These results are principally due to the extreme scores obtained by only a few individuals and there seems to exist various subgroups within the hypomanic personality group. Therefore, admitting the importance of hypomanic personality as a high risk factor,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indicate that future research should focus on effectively classifying different subgroups within the hypomanic group and identifying mediating variables that account for the differences in the adjustment levels.